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9월 5주~10월 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 9월 실업률 5.6%로 집계, 전월 대비 0.1%p 상승(10.6)
 - 폴란드 가족·노동·사회정책부(MRPiPS)는 9월 실업률을 5.6%로 집계, 이는 8월(5.5%)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
 -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1만 300명 증가해 약 86만 7,600명
 - 통계청(GUS)은 실업률을 7월 5.4%, 8월 5.5%로 집계한 바 있음
 - EU 통계청(Eurostat)은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해 8월 폴란드 실업률을 3.2%로 추정, 이는 EU 27개국 중 최저 수준 중 하나
- 폴란드, 8월 주택담보대출 40% 이상 급증(9.30)
 - 폴란드 신용정보국(Biuro Informacji Kredytowej, BIK)에 따르면, 2025년 8월 폴란드 내 주택담보대출(모기지) 승인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40.4% 증가한 88.2억 즈워티(약 3.4조원) 기록
 - 대출 건수는 전년 대비 29.5% 증가한 194백건으로 나타났으나, 전월 대비로는 13.9% 감소하며 일시적 둔화 양상
 - 1~8월 누적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총 14만 8,200건, 금액 기준 651억 즈워티(약 25.2조원)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.6%, 8.1% 증가
 - 로고프스키 BIK 수석 애널리스트는 “지원제도 없이도 높은 대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”며, 유럽 주요국 대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시장 반응이 긍정적임을 강조
 -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정부 지원자금이 소진되고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위축된 기저효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
 - 실질임금 상승, 금리 및 인플레이션 하락, 낮은 실업률 등 거시지표가 주택담보대출 시장 회복 견인

- 8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457,440즈워티로, 전년 대비 8.4% 증가
- BIK 상환 지표에 따르면 모든 대출 유형의 건전성은 안전 수준 유지 중이며, 모기지 및 현금대출의 상환 품질은 전년 대비 개선세 지속
- 로고프스키는 “현재 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전통적 신용위험이 아닌 법적 리스크”라고 지적하며, 대출 품질 모니터링 지속 필요성 강조

○ 9월 폴란드 소비자물가지수 2.9% 기록, 두 달 연속 3% 하회(9.30)

- 통계청(GUS)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월 대비 2.9% 상승하여, 시장 예상치였던 3.0%를 하회
- 8월과 동일한 수치로, 두 달 연속 3% 미만 기록하며 중앙은행(NBP)의 물가 목표($2.5\% \pm 1\%p$) 범위 내 유지
- 전월 대비 CPI는 0.0%로 두 달 연속 ‘물가 동결’ 상태 유지, 이는 월평균 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
- 최근 3개월간 CPI 월평균 상승률은 0.17%, 이 추세가 12개월간 유지될 경우 NBP 목표 범위(1.5~3.5%) 내 안정적 진입 가능성 시사
- 자동차 연료(-4.9%) 등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○ 세계은행, 폴란드 2025년 GDP 성장률 전망 3.2%로 유지(10.13)

- 세계은행은 2025년 폴란드 GDP 성장률을 3.2%로 예측하며, 2026년 3.0%, 2027년 2.9% 성장 전망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
- 서비스업 회복력, 투자 및 소비 수요 증가를 성장 견인 요인으로 분석
- 폴란드 정부는 2025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6.9%로 상향, 세계은행은 2026년 6.2%로 소폭 개선 예상
- 국방비(약 GDP의 5%), 사회보장 지출 확대, 인프라·에너지 관련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지출 압박 지속
- 정부 부채는 2024~2027년 사이 GDP 대비 14%p 이상 증가, 2027년경 GDP 대비 약 70% 도달 전망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 물류창고 수요 급증, 공실률 1% 이하로 하락(9.24)

- 2025년 2분기 기준, 우크라 내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, 공실률은 키이우 1.03%, 르비우 0.57%로 낮은 수준을 기록
- 최저 공실률은 르비우-루츠크 방면 고속도로 구간으로 0.34%, 최고는 키이우-오데사 및 드니프로 방면으로 1.39%를 기록, 이는 기존 공실 창고의 임대료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
- 임대료는 르비우 지역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, 이바노프란키우스크 방면은 m²당 \$7, 키이우-바르샤바 및 지토미르 방면은 \$3.8로 가장 저렴
- 최신 설비를 갖춘 A급 창고의 임대료는 양 도시 모두 \$5.5/m², B급 창고는 키이우 \$3.4, 르비우 \$4.3 수준
- 전체 평균 임대료는 키이우 \$3.3/m², 르비우 \$5.44/m²로, 서부 지역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우크라이나, 최근 2년간 토지 가격 600% 급등(9.30)

- 우크라 독립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 기록, 특히 농지 및 대도시 인근 토지가 중심
- 법인의 토지 매입 허용으로 농업 기업 수요 급증, 전시 상황 속 안정적 자산으로 토지 선호 확대
- 수도 키이우 및 르비우, 드니프로, 오데사 등 주요 도시 주변 토지 수요 급증
- 교외 주택개발 수요에 따른 투기 거래 증가, 일부 지역은 주거용 부지 가격이 400~900% 상승
- 키이우 지역 내 헥타르당 €3~4만('22년 기준)에서 현재 €20만 이상으로 상승
- 서부 국경 지역(유럽연합 인접)에서는 물류센터 및 산업용지 수요로 추가 상승세
- 전체적으로 외국인 및 국내 기업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전환

추세와 맞물려 토지 수요 지속 전망

○ 키이우 신축 아파트 가격, 연말까지 추가 10~15% 상승 전망(9.29)

- 키이우 신축 아파트 공급 감소 및 꾸준한 수요로 인해 신축 주택 가격 지속 상승 전망
- 2025년 연말까지 공급 예정 신축 아파트는 12,000~14,000세대로 전년 대비 15~20% 감소
- 2025년 상반기 기준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% 상승, m²당 평균 가격은 등급별로 \$1,000(보급형), \$1,300(중급형), \$2,200(고급형), \$4,400(최상급)
- 기존(중고)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 유지, 상반기 가격 상승률 8~10%, 평균 m²당 약 \$2,000, '즉시 입주 가능성'이 구매 결정 주요 요인
- 신축 공급 감소 지속 시 중고 주택 수요 증가 전망, 현재 분양 중인 주택 단지 수는 140~150개로, 전쟁 전 대비 약 25% 감소

○ 우크라이나 재무부, 올해 첫 외화 국채 전액 차환 결정(9.30)

-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국방 지출 확대 대응을 위해 2025년 처음으로 외화 표시 국채 상환분 전액 차환 추진
- 지난주 3.5억 달러 규모 외화 국채 상환 후, 2억 달러(2027년 만기) 신규 발행
- 9월 30일 동일 조건으로 1.5억 달러 추가 발행 예정으로, 총 3.5억 달러 상환분 전액 차환
- 일반적으로 외화 국채 발행 규모 축소 기조이나,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예외적 결정
- 연말까지 약 9억 달러 규모 외화 국채 상환 예정이며, 10월 3.5억 달러, 11월 3.62억 달러, 12월 초 1.88억 달러가 각각 상환될 계획
- 향후 3개월간 만기 임박 국채 중심으로 외화 채권 발행 가능성 존재

○ 우크라 제약사, Uzhhorod에 혈장 의약품 공장 건설 진행중(9.24)

- 우크라 제약회사 Biopharma Plasma, 우즈호로드(자카르파티아)

- 지역에 건설 진행 중인 혈장의약품 생산시설이 공정률 80% 달성
- 2026년 상반기부터 1단계 생산 시작 예정이며, 초기에는 혈장 침전물 생산한 후, 빌라 체르크바(키이우주) 공장에서 정제·완제품 생산 예정
- 올해 2단계 공사 착공 예정, 완료 시 우즈호로드 현지에서 완제품 까지 생산 가능. 생산량은 빌라 체르크바 대비 2배 예상
- 연간 150만 리터 혈장 처리 능력, 직원 150명 고용 계획. 수출 중심 생산기지로 활용 예정
- 2024년 가을에 준공 시작되었으며, 총투자액은 80백만 유로(약 1,320억원)

○ 우크라 물류기업, 서부 지역 물류 허브 건설에 30백만 달러 투자(10.2)

- 우크라 물류·우편 그룹 Meest, 서부 최대 규모 물류 허브 건설에 3천만 달러(약 428억 원) 투자
- 신축 물류센터는 리비우 외곽 순환도로 남동부에 위치, 부지 면적 5.5헥타르, 건축 면적 2.4만m²
- 해당 지역은 국경검문소와 우크라이나 내 주요 물류 루트를 연결 하는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, 국제물류 효율성 제고 및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기대
- 2026년 4월 완공 예정, 하루 100만 개 이상의 소포 처리 가능, Meest의 국내 최대 물류 시설이 될 전망
- Meest 그룹 내 주요 사업부(ROSAN, Meest Post, Meest Cargo, Meest Shopping, Meest International) 입주 예정, 각 사업부별 전용 창고 및 자동화 분류 시스템 구축
- 시설에는 700~1000k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자체 전력 자립도 가능
- 본 투자로 우크라이나-유럽 간 물류 연결성 강화 및 전시 상황 속 공급망 회복력 제고 기대

○ 우크라 티타늄 기업, DFC에 2.4억 달러 프로젝트 제안(9.25)

- 우크라 티타늄 기업 Velta는 美 국제개발금융공사(DFC) 및 美-우 재건 투자기금에 총 243백만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제안
- 제안된 프로젝트는 핵심 광물 클러스터 내 사업으로, 향후 4년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며, 전체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개별 사업 공동 개발이 포함됨
- 분야별 투자 계획은 건설 부문(42.5백만 달러), 분말·합금 및 티타늄 제품 제조 등 가공 부문(57백만 달러), 카올린 채굴(22.5백만 달러), 태양광, 바이오가스, 저장 시스템 등 에너지 인프라 부문(21백만 달러)
- 연간 예상 생산 규모는 일메나이트(Ilmenite) 28만 톤, 지르코늄 산화물 500톤, 티타늄 분말 1,200톤, 카올린 70만 톤, 점토 80만 톤
- Velta는 미국과의 광물 자원 협정에 따른 이번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DFC 및 재건 투자기금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기대

○ DTEK, 美 Fluence와 폴란드 133MW 에너지 저장사업 추진(9.24)

- 우크라 에너지기업 DTEK의 EU 재생에너지 자회사 DRI, 미국 Fluence Energy와 협력해 폴란드 트제비니아(Trzebinia)에 133MW 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추진
-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 가동 예정이며, 우크라이나 전력난 시 예비전력 활용 가능해 우크라·동유럽 에너지 안보에 전략적 의미
- Fluence의 Smartstack 플랫폼 적용, 사이버 보안 통합 설계 포함
- DTEK과 Fluence는 9월 초 우크라이나 내 200MW 규모 에너지 저장시스템 6기 가동, 전력망 회복력 강화에 기여한 바 있음
- DRI는 이번 프로젝트가 폴란드·우크라·EU의 에너지 독립성 강화 및 DTEK의 동유럽 포트폴리오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평가

○ 우크라 에너지 기업 Kness, 국내 개발 산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첫 가동(9.30)

- 우크라 재생에너지 기업 Kness 그룹, 우크라이나 남부 및 중부에 총용량 100MWh 이상의 8개 에너지 저장단지(ESP) 완공 및 가동

- 10월 1일부터 전력망 연결 완료, 전력시장 참가자 자격 취득 후 서비스 제공 예정
- 총 투자금액 4,000만 달러, 자체 자금과 파트너 및 은행 자금 활용
- 대부분 프로젝트는 중국 HiTHIUM사의 기술 기반이나, 10MW 이상 용량의 한 프로젝트는 Kness 그룹 자체 기술로 개발
- 자체 기술은 4년간 연구·개발 진행을 거쳐, 현재는 자체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여 ESP 운영 및 거래 자동화 지원
- 우크라이나 산업용 에너지 저장 기술 자립에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됨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란드 크라쿠프시, 도시철도(지하철) 계획 공개(9.24)

- 미샬스키 크라쿠프 시장은 10년 내 첫 지하철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발표
- 총길이 약 29km, 2개 노선(M1, M2)으로 구성되며, 노바 후타에서 오파트코비체·쿠르드바누프까지 연결
- M1·M2 노선은 시 중심을 경유한 뒤 브로즈카 거리에서 분기되며, 총 29개 정차역 설치 예정
- 지하철은 크라쿠프 도시철도망(지하철, 광역철도, 경전철, 버스, 자전거도로)을 완성할 핵심 인프라로, 이동시간 단축(최대 50%) 및 교통 소외 해소 기대
- 브로즈카~콤비나트 구간은 2분 간격, 지선은 4분 간격으로 운행 예정이며, 일일 약 28만 명 이용 전망
- 정차역 주변에 공공·상업 공간 및 환승주차장 조성, 주거·상업·오피스 단지 개발 유도 계획
- 총사업비는 약 130~150억 즈워티(약 5조~5.8조원)로 추산되며, 시 예산(10~12%), EU 지원금(40~50%), 민간투자 등 삼원재원 추진
- 자동화·무인운전 시스템 도입 예정이며, 코펜하겐 지하철이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됨

○ CPK, 고속철 'Y선' 최고속도 350km/h로 상향(10.1)

- CPK는 바르샤바 - 우치 - 포즈난/브로츠와프 'Y선'의 최고속도를 기존 250km/h에서 350km/h로 상향한다고 발표
- 속도 상향 시 바르샤바 - 브로츠와프는 1시간 36분, 바르샤바 - 포즈난은 1시간 38분 소요 예상
- Y선은 총 연장 480km, 바르샤바 - CPK - 우치 구간에서 포즈난·브로츠와프로 분기되는 CPK 핵심 노선
- 본 노선은 설계 초기부터 350km/h 기준으로 구축됐으며, 낮은 속도 운행은 인프라 낭비라는 지적
- 시뮬레이션 결과, 속도 100km/h 차이로 최대 40분 시간 단축, 최소 정차 시에도 약 15분 차이 발생
- 중속 열차(200~300km/h)도 병행 운행 예정, 시에라츠·칼리시 등 중소도시 수요도 대응
- 전체 승객의 약 80%는 대도시(바르샤바·우치·포즈난·브로츠와프) 간 이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
- CPK 신공항은 2026년 착공, 2032년 개항 예정, 고속철 1단계 구간과 동시 개통, 총투자비 1,317억 즈워티 추산

○ PKP, 181개 철도역 대상 '승객 친화형 역' 투자 프로그램 발표(9.25)

- 폴란드 국영철도 PKP는 전국 181개 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프로그램 'Dworce Przyjazne Pasażerom(승객 친화형 역)' 발표, 총 183건의 사업에 14억 즈워티(약 5.4조원) 배정
- 주요 사업은 신축, 대규모 현대화, 소규모 개보수 등 다양하며, 이용객 중심·환경친화·지역 교통 연계성 향상 등에 초점
- 역 개발의 60% 이상이 인구 5만 명 이하 중소도시에 집중, 역을 지역 커뮤니티·상업·공공 기능 통합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전략
- PKP는 'Dworce dla Samorządów(지자체를 위한 역)' 별도 프로그램 통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예정, 1억 즈워티 규모 예산 편성
- 전체 사업은 투자 목적과 규모에 따라 ▲투자형 ▲효율형 ▲보수형

▲관광형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, 바르샤바 중앙역, 크라쿠프, 포즈난, 루블린 등 대도시 주요 역도 일부 포함

- 사업 대상은 승객 수, 환승 기능, 열차 종류, 지역 인구 등 다양한 지표 기반 평가로 선정되었으며, 지자체 요청도 일부 반영됨
- 기존 2016~23 투자 프로그램의 잔여 30여 개 사업은 별도로 진행 중

○ 폴, 민군 겸용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EU 재정 지원 요청(9.29)

- 폴 정부와 국영 철도회사(PKP)는 민군 겸용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차기 EU 예산에서 수십억 유로 규모 재정 지원을 요청 중
- 사업에는 전차 수송용 플랫폼 신설, 교량·터널 현대화 등 포함, NATO 병력의 신속 전개를 위한 군사 기동성 강화 목적
- 유럽연합 집행위는 해당 목적에 총 170억 유로 배정 예정, 폴란드는 NATO 동부전선 핵심국으로 상당한 몫 수혜 전망
- 유럽의회 의원들은 현 지정학적 상황이 지원 확대에 유리하다는 입장, PKP 카고 등 폴란드 기업들도 실질적 수혜 기대

○ 폴란드 슈체친시, Kłodny 교량 건설 입찰 공고(9.22)

- 폴란드 슈체친시는 미엥지오드제 지역 슈체친항 도로 접근성 개선 사업 중 Kłodny 교량 건설 부문에 대해 입찰 공고를 발표
- 해당 사업은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으나 재정 부족으로 지연, 현재 외부(국가 또는 EU) 재정 지원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추진 본격화
- 교량은 트라사 잠코바(Trasa Zamkowa) 인근에 위치하며, 고층 파일론이 주요 구조물로 설계됨
- 차량 외에 트램도 통행 가능, 트램은 에네르게티쿠프(Energetyków) 거리에서 포르토비에츠 광장(Rondo Portowców) 방향으로 연장 예정
- 교량 건설과 함께 주변 주요 도로 구간 정비 및 신설, 라슈토브니아(Łasztownia) 내 주차장 건설도 포함
- 입찰 마감일은 2026년 3월 6일, 선정된 시공사는 계약 체결 후 36개월 내 사업 완료해야 함
- 슈체친시 다년도 재정계획 상 해당 사업 비용은 352백만 즈워티(약

1,362억원)로 추산되며, 시는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중

○ 폴란드, NATO 연료 파이프라인 시스템 참여 계약 체결(10.3)

- 폴란드 정부, 2백억 즈워티(약 7.74조원) 규모 NATO 연료 파이프라인 시스템 연결 사업 예비 계약 체결, 국가 안보 분야 최대급 인프라 프로젝트로 평가
- 사업 내용은 독일 국경~비드고슈치 인근 연료 기지까지 약 300km 파이프라인 건설, NATO 연료 저장시설 신설 포함, 국영 연료기업 PERN과 NATO 투자기관 간 계약 체결
- 국방부 차관은 “11년간 추진해 온 역사적 사업”이라 언급,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(2014) 이후 본격 논의 시작
- “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장비, 탄약, 연료”라며 지속적 연료 공급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
- 에너지부 차관은 해당 사업이 군사·에너지 안보 모두 강화하며, 공항 등 민간 연료 수요도 지원 가능한 이중용도 인프라임을 설명
- PERN CEO는 “현재 폴란드 연료망은 고립 상태”라며, NATO 파이프라인 연결로 위기 시 대규모 물류 대응력 확보 기대
- 국방부는 이번 계약이 사업 초기 단계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 언급하며, 폴란드의 NATO 내 전략적 파트너 위상 제고 및 연합군 기동성·작전 효율성 향상 전망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우크라이나 정부, 2025~2027년 지역 재건 3개년 계획 승인 및 EU 재건 사업 평가 진행(9.29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5~2027년 지역 재건을 위한 101개 항목의 실행계획 승인, 점령 해제 지역의 통합부터 지역 사회 내 사회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
- 3대 전략 목표는 ▲통합 국가 구축 ▲지역 경쟁력 강화 ▲효율적 거버넌스 확립으로, 보안 교실 4,500개 설치, 사회주택 80만㎡ 건설,

정신건강·보안센터 설립 등 포함

-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창출, 투자 유치, 관광 진흥, 디지털 전환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
- 국가 지역개발기금은 중·서부 지역 27개 프로젝트에 총 372백만 흐리우냐(약 127억원) 지원 승인
- EU 집행위는 '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(UIF)'를 통한 재건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사업들 평가 완료
- EIB(유럽투자은행)는 사회주택사업(1차)을 통해 국내 실향민 및 가족 대상 주택 공급(1,500세대) 예정이며,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정수장 및 양수장 현대화, 하수관망 복구할 예정
- WB(세계은행)은 RELINC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철도 및 도로 복구, 국경검문소 현대화 등 물류·교통 인프라 재건 사업 추진

○ 우크라, 셰일가스 사업 재개 및 미국산 LNG 직수입 추진(9.29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시 경제 회복을 위한 대미 광물자원협정하에 첫 사업안 제출, 나프토가즈가 공동투자펀드 초기 투자처로 검토 중
- 나프토가즈는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10개 사업안 제안, 이 중 3개는 2026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내각이 시행할 예정
- 셸(Shell)과 셰브론(Chevron)은 2010년대 초 우크라이나 셰일가스 탐사 착수했으나,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및 동부 분쟁 이후 철수
- 단, 셰브론이 계획한 서부 '올레스카(Oleska)' 지역은 계속 개발 가능
-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규모 가스 매장량 보유국 중 하나이나, 러시아의 생산시설 및 지하저장소 공격으로 가스 생산 감소
- 전체 가스 수입 중 약 10%는 폴란드 PKN 오를렌을 통한 미국산 LNG, 현재 나프토가즈는 미 에너지 기업들과 직수입 계약 협의 중

○ 우크라-한국 총 13개 공동 프로젝트 추진, 6건은 이미 착수(9.25)

- 올렉시이 쿨레바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회담 후, 13개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, 이 중 6개는 이미 착수됐다고 발표

- 주요 사업은 ▲철도 교통관리센터 건설, ▲우크라이나 항공산업 현대화, ▲지토미르 중장비 교육센터 설립 등 포함
- 쿨레바 장관은 이들 사업이 교통·항공·물류 인프라 회복과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
-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고속 전기열차 20편 도입을 위한 우대 대출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으며, 이는 양국 간 최대 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, 철도 현대화의 핵심 사업이라 강조
- 해당 열차 사업은 한국 주요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
- 양측은 또한 인프라 복구용 중장비(굴착기, 트랙터, 크레인 등)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함

○ 우크라이나 Naftogaz, EIB로부터 3억 유로 차관 확보(10.2)

-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z는 유럽투자은행(EIB)과 3억유로 (약 4,953억 원) 규모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강화 및 가스 비축 확보를 위한 차관 계약 체결
- 해당 차관은 EU 우크라이나 투자 프로그램 일환으로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증 하에 지원
- 이번 지원으로 이번 겨울 수십만 가구 난방 안정성 확보 가능, 러시아의 공격 지속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기대
- 차관은 가스 확보뿐 아니라, Naftogaz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적 전환 지원에도 사용 예정
- EIB는 Naftogaz의 녹색 전환(green transition)을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역량 강화 지원도 병행
- Naftogaz는 현재까지 4억m³ 이상 미국산 LNG를 폴란드 중개업체 통해 수입 완료, 연말까지 5억m³ 수입 목표로 확대 계획
- 정부 승인 기준에 따라, 지하 저장소 내 가스 비축 목표의 95~97% 충족이 완료되었으며, 겨울철 수요 대응 준비 완료 상태

○ 그리스, 우크라이나에 2억 유로 규모 자주포·탄약 지원(10.7)

- 그리스 정부는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해 약 199.4백만 유로 상당의 군사장비 이전 계획 발표
- 지원 장비는 자주포(M110A2) 60문과 203mm 포탄 15만 발(집속탄 포함)으로, 체코를 중개국으로 전달 예정
- 해당 지원은 국가안보회의 승인 후 확정될 예정이며, 국방력 저하 우려는 없다고 정부 측 설명
- 미국은 PURL 구상(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)을 통해 그리스의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확대를 독려 중
- 이와 함께, 그리스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조기 인도받는 조건으로 Mirage 2000-5 다목적 전투기를 제3국 경유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
- EU의 15백억 유로 규모 SAFE 공동방위조달 사업과 관련해, 유럽 동맹국들은 그리스에 튀르키예 참여 수용을 요구하고 있음

○ 영국·프랑스·독일,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합의(10.13)

- 영국, 프랑스, 독일 정상 공동성명 통해 “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한 러시아 동결자산의 공동 활용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”며, 미국과의 공조 하에 추진 의지 표명
- 현재 EU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의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 논의 중
- 해당 대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만 상환되며, 이로 인해 유럽 금융시스템(EU, 벨기에, 유로클리어 등)에 추가 위험은 없다는 평가
- 구체적으로는 벨기에 내 러시아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, 이를 담보로 EU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
- 다만, 벨기에는 리스크 분산을 위한 EU 차원의 보증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계획 실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
- EU 집행위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동결자산은 EU가 계속 보유하며, 실제 EU 재정 보증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회원국에 설명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0(262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10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, 사업주관 거래조건 협의, 계약 연장 완료(~10월 말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
- (주요동향) EPC 관련 보증 회수(107백만유로)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

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KIND, 남동발전, 베올리아, BHI
- (사 업 비) USD 490백만
- (사업기간) 2026.2.~2049.1. (건설 38개월, 운영 20년)
- (주요내용) 전기 121MWe,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(추진현황) '23.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
'24. 1월~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(F/S 비공모 컨설팅지원)
'25. 10월 타당성 재검증 용역 실시 (남동발전)
'25.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예정
'26. 2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
'29. 1월 COD

- (주요동향) 사업주 간 협의 및 타당성 재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의위원회 부의 예정

③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10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필 향 등 건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